

#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구하자”

## 한장총 김수읍 대표회장, 금식하며 한국교회-나라 위해 기도할 것

한국장로교총연합회(이하 한장총) 대표회장 김수읍 목사는 한국교회 지도자와 1천 2백만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돼 회개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호소문을 최근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한국교회 성도 한 가정씩 한 달에 하루 금식하며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한장총 대표회장 김수읍 목사는 지난 5월 12일(토) 호소문을 통해 “코로나19는 초대교회 이후 시대마다 일어나는 징조와 사건들을 보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구하는 기도로 위기를 넘겨왔다”며 “현재 ‘코로나19’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인 재앙이며, 아직은 선부른 말이지만 말세의 징조로까지 말할 정도로 파괴력이 상당히 큰 가운데, 한국교회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자

지단체에서 시작돼 정부까지 교회에 대해 무리한 언어와 경찰까지 대동한 점검과, 일부 국회의원이지만 종교를 개변하겠다는 발언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회장은 “총선 후 정부가 교회에 대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대충 알고 계시므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제21대 총선 결과가 한쪽으로 너무 쏠려 매우 우려스럽지만, 우리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이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방향을 구해야 할 때다”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회장은 특히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앞도려 통회자복하며 기도할 때다”며 “위기를 위기로 보지 말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

의 뜻을 찾고 방향을 구하길 호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회장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작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흐트러진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회장은 ‘교회와 빛과 소금의 역할 못 해 사회에 희망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근심을 주는 것’, ‘예배로 모이기를 폐하고 나타내지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쏟을 기회를 잃고 있는 것’,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사람들이 가로챈 것’, ‘인간의 명예나 돈, 감정, 지연, 학연싸움에 노획, 총회, 연합회, 선교단체 등에서 각종 분열과 분쟁하는 것’ 등에 대해 회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수교단협, 교단장 및 총무 연석회의

## 향후 기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논의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한홍교 목사)는 지난 5월 11일(월) 오전 11시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소재 동 협의회 비전센터에서 교단장 및 총무, 단체장 법인이사, 공동회장, 자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 기독교의 어려운 상황과 향후 기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오현관 목사(오순절교회 총무)의 사회로 김성림 목사(예장지중회 총무)의 기도, 김영애 목사(예장예총회 총무)의 성경봉독, 도길용 목사(예장교회 협동총무)의 특별찬양, 장한국 목사(예장진리교회 총회장)의 고전 4:1-4 말씀을 본문으로 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라는 제목의 말씀선교, 박은주 목사의 분향찬송, 김혜자 목사(예장들로스 총회장)의 분향기도, 박영호 목사(법인이사)의 축사, 애영수 목사(한기보 고분)의 격려사, 한홍교 목사(대표회장)의 인사말씀, 김준희 목사(사무총장)의 광고

진공영 목사(중부지회장)의 축사로 마쳤다.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는 인사말씀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생활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교회도 회중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실에 목사님들은 성도들 간에 ‘두뇌’로 가까이 다가가 더욱 좋은 관계를 갖고 말씀이 육신 되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며, 능력의 사역자가 되자”고 말했다.

2부 회의는 코로나19 이후 기독교의 나아가야 할 방향, 또한 현 정치권력이 기독교를 재편하고자 하는 발원에 대하여, 교단장 및 단체장 총무들의 의견을 듣고 현실에 적용하는 방향을 채택했다.



#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제45기 부흥목회연구원 개강

## 봄학기 개강예배 및 세미나, 오는 7월 17일 종강

(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총재 이태희 목사)는 지난 5월 7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성복교회(담임 이태희 목사) 바울성전에서 동 본부신학 부흥목회연구원 2020년도 제45기 봄학기 개강예배 및 부흥세미나를 가졌다.



1부 개강예배는 교무처장 김애복 목사의 사회로 총동무회장 양준원 목사의 기도, 종강사단장 신석 목사의 성경봉독, 행정처장 손보라 목사의 특송, 총재 이태희 목사의 마 5:11-12 말씀을 본문으로 한 ‘부흥세미나?’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했다.

예배는 계속해서 대표회장 함덕기 목사·연수원장 박영길 목사의 축사, 부총재 고세진 목사의 격려사, 연구원장 전영국 목사의

1부 개강예배는 교무처장 김애복 목사의 사회로 총동무회장 양준원 목사의 기도, 종강사단장 신석 목사의 성경봉독, 행정처장 손보라 목사의 특송, 총재 이태희 목사의 마 5:11-12 말씀을 본문으로 한 ‘부흥세미나?’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했다.

예배는 계속해서 대표회장 함덕기 목사·연수원장 박영길 목사의 축사, 부총재 고세진 목사의 격려사, 연구원장 전영국 목사의

학사보고 및 광고 후 총재 이태희 목사의 축사로 마쳤다.

이어진 2부 개강 부흥세미나는 부총재 이주형 목사가 특강을 했으며, 3부는 제45기입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1학기 일정은 이번 개강예배를 시작으로 오는 7월 16일(목), 17일(금) 양일간 연합수련회를 끝으로 종강한다.

# 한동대 25개국 학생, ‘의료진 덕분에’ 캠페인 동참

## “한국과 전 세계 의료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해요”

한동대학교(총장 정순흥)는 최근 교내 재학 중인 25개국 학생들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진 덕분에’ 캠페인에 동참했다.

가나,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온두라

스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체코,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페루, 프랑스, 필리핀, 한국, 헝가리 출신 학생들이었다.

이번 캠페인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사태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응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해 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캠페인이다.

학생들은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화 동작과 함께 “의료진 덕분에,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를 뜻하는 22개의 각종 언어로 영상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미국에서 온 Karis Tripple 학생은 “한국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았던 2월에 입국해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한국의 의료진과 학교의 도움 덕분에 안전하게 수확하고 있다”라며 “한국과 전 세계 의료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학생들이 의료진들에게 전한 감사 영상은 한동대학교 유튜브 채널 및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미스터트롯 류지광, 선한이웃 화보 재능기부

## 장기기증운동...“막다른 길에서 만난 미스터트롯, 기적을 나누고 싶어요”

(재)사람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본부, 이사장 박진탁)는 지난 4월 8일(수)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스튜디오에서 가수 류지광 씨의 잡지 ‘선한이웃’ 표지 화보 촬영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선한이웃’은 장기기증인과 이식인의 미담 소식 및 장기기증 관련 정보 등을 담은 잡지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번 화보 촬영은 류 씨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졌다.



올해 최고의 화제를 불러 모은 TV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동굴 저음’으로 화제가 된 가수 류지광 씨는 지난 2013년 교회에서 드려진 생명나눔 예배를 통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다. 류 씨는 “7년 전, ‘불로 돌아오는 것에 미련을 두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어요”라며 등록 계기를 밝혔다. 이후 2018년에는 뇌사 장기기증인 유기족 모임인 ‘도너페

시언을 곁에서 들으며 생명을 살리고 떠나는 일에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됐죠”라고 소감을 전했다.

본부 행사 참여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됐다는 류지광 씨는 “장기기증은 자신의 삶으로 사랑의 끈을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해요”라며 “저 역시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일상에서부터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했어요”라는 뜻을 밝혔다.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인터뷰에 임하며 사진 촬영을 진행한 류 씨는 “제가 막다른 길에서 기적처럼 ‘미스터트롯’을 만나 기사회생 했듯 분명 여러분들에게도 기적 같은 날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라며 “앞으로도 무대 위에서 노래로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가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기증 환자 여러분, 소망 잃지 마시고 헌내주세요”라는 응원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 저소득 미혼모 가정 위한 협약 체결

## 육아용품 포브-기독교단체 지파운데이션...베이비 선물상자 전달

육아용품 브랜드 포브와 지파운데이션이 저소득 미혼모 가정을 위한 ONE for ONE(이하 원포원) 캠페인을 진행한다. 포브와 지파운데이션은 지난 7일 사회공헌활동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포브의 신제품인 ‘보노와 벨라’의 판매된 수량만큼 미혼모를 위해 기저귀 가방을 기부하는 원포원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포브에서 기부한 기저귀 가방은 지파운데이션의 ‘헬로 베이비 선물상자’ 캠페인을 통해 기저귀 가방과 함께 물티슈, 피우치, 로션 등이 담겨 미혼모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인수 포브대표는 “기저귀 가방은 아기를 키우는 미혼모 가정에 꼭 필요한 물품이라고 들었는데, 미혼모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에 동참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충관 지파운데이션 대표는 “미혼모 가정을 위해 나눔에 동참해 준 포브에 감사드립니다”며 “원포원 캠페인을 통해 많은 분들이 미혼모 가정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응원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포브는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의 주요 제품 제조사인 (주)동인기연의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가장 소중한 존재인 아이가 안전하길 바라는 마음의 가치를 담아 제품을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는 육아용품 브랜드이다.

# 희망친구 기아대책, ‘자발적 기부 캠페인’ 진행

## 8월 31일까지 “더 어려운 이웃 위해 후원해주세요”

전국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생계 위기를 겪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이 받은 재난지원금을 직접 후원하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캠페인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직접적 타격을 입은 생계 위

기 가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전국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기에 발맞춰 오는 8월 31일까지 기아대책 홈페이지(www.kfia.or.kr)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기부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모아진 후원금은 기아대책의 위기가정 긴급 지원사업 ‘희망동지’ 대상자 중 코로나19에 따른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정에 지원된다. 희망동지 지원 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처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으로, 사회복지 유관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통해 신청 받는다.



# CGNTV, 미혼 한부모 가정에 5000만 원 전달

##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길 바라”

CGNTV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한부모 가정을 위해 ‘러브더월드’에 5000만 원을 전달했다. 러브더월드’는 전국 900여 미혼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이다.

지난 7일, CGNTV 이용경 대표를 비롯한 20여 명의 직원들이 함께 ‘러브더월드’에 방문하여 기부금을 전달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미혼 한부모 가정을 위한 식료품 키트 100 박스를 포장했다.

‘러브더월드’에 전달된 기부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모금 ‘사랑으로 함께’ 모금액 중 일부이다. CGNTV는 별도의 선정



위원회 심사를 거쳐 ‘러브더월드’를 포함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 지원으로부터 소외된 단체 13곳과 전국 15개

소 청소년 회복센터에 총 1억50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CGNTV 이용경 대표는 “2300여 후원자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셨는데, 직원들도 함께 참여하여 봉사함으로써 이 시대의 어려움을 돕는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 큰 기쁨이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러브더월드 박대원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미혼모, 미혼부 가정은 더 힘든 상황을 겪고 있으며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전화와 문자들이 빗발친다”며 미혼 한부모 가정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